

사시사철 향기롭다 '윤희매'

〈밀랍으로 만든 매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는 오래된 주백 윤희매문 화관(광주시 남구 서서평길 21-2).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오르면 잔잔한 음악과 차향기 가득한 공간이 펼쳐진다. 가끔 음악회가 열릴 때면 뒷마루에 앉아 연주를 감상하며 위로를 받기도 한다. 무엇보다 이



곳에서는 사시사철 '매화'를 만날 수 있다. 밀랍으로 만든 매화, '윤희매(輪細梅)'다. 정조 시대 실학자 청장관(靑莊館) 이덕무(1741~1793) 선생이 창제하고 이름을 붙인 윤희매를 재현하고 있는 다음 작가는 윤희매와 함께 선생의 사상과 성품을 알리기 위해 문화관을 운영하고 있다.

윤희매가 예술의 거리 갤러리 공간으로 들어왔다. 은암미술관(관장 채종기)이 초대전으로 기획한 '윤희매 자화·찾잔에잠기다'전(3월 17일까지)을 통해서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다란, 꽃병 등 다양한 도자기와 어

다음 작가 '찾잔에 잠기다'전

3월 17일까지 은암미술관

도자기와 어우러진 윤희매 40점 전시

매주 토요일 차담시간 29일 시연도

조선시대 이덕무 선생 밀랍화 창제

우러진 윤희매 작품 40점을 만날 수 있다. 윤희매를 처음 접한 이라면 실제 매화꽃과 흡사한 느낌의 꽃잎을 보며 신기한 감정을 느낄 듯하다. 다음 작가가 줄곧 제작해온, 향아리에 꽃은 윤희매를 보이었던 이들이라면 이번엔 집중적으로 선보이는 '윤희매자기'라는 평면작품이 색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 향아리 작품이 먼지가 앉거나 망가질 우려가 있어 시작한 평면 도자기 작품은 돌가루로 작업하며 아홉번의 옷칠을 하고 보이자 등을 우레 색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다음 작가가 손으로 피워낸 윤희매 작품들은 붉고 푸른 꽃잎과 꽃받침과 함께 자유롭게 휘어지고, 뻗어나간 실제 매화 나뭇가지들이 어우러져 다채로



다음 작가

운 느낌을 만들어낸다.

가난한 선비였고 책을 좋아했던 이덕무 선생은 차를 아낀 '다인(茶人)'이기도 했다. 매화를 곁에 두고 차를 즐겼던 그는 한달이면 지고 마는 매화를 늘상 보고 싶다는 생각에 밀랍으로 매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다음은 윤희매를 처음 제작한 게 지난 1996년이니 벌써 25년이 넘는다. 이덕무 선생이 직접 그림으로 그리고 글로 적어 윤희매를 만드는 10가지 과정을 밀랍과 노루털, 나뭇가지, 색소 등 천연재료들을 사용한다. 굳어있는 밀랍을 녹인 다음 '매화꿀'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잎을 만든다. 꽃술은 노루털을 사



'호문향(好文香)' 문인이 베푸는 향기

용하고 옷칠을 해서 황을 문힌다. 매화잎과 꽃술, 꽃받침 등을 밀랍땀질로 나뭇가지에 붙이면 작품이 완성된다.

전시작 중에는 '벗이여 국화주 익었네' '용이 나르샤' 등 돌가루로 만든 도자기를 화면 중앙에 배치하고 아크릴 물감으로 포인트를 준 작품들도 눈길을 끌며 향아리에 매화가지는 꽃은 기존 작품도 만날 수 있다.

2층에는 이덕무 저술 총서 '청장관 전서' 중 제 62권 '윤희매집전'을 한자와 한글로 필사한 작품이 전시돼 있다. '마음 속에 이덕무 선생을 그리워하고 뼈에 사무치듯 마음에 새기며 뜻을 두고 있었던' 다음 작가는 2018년 9월부터 6개월간 필사 작업을 진

행했고 선생의 기일인 1월 25일 완성했다. 필사본은 이번엔 처음 공개되며 한자본은 10m 30cm, 한글본은 22m 76cm에 달한다. 겹포장은 나주 쪽염색 인 간문화재 정관채 선생이 조선시대 비단에 9번 염색한 천을 사용했다.

전시장 한편에는 소박한 찾잔도 마련돼 있다. 다음 선생은 전시 기간중 매주 토요일 오후 2시~3시 관람객들과 차를 마시며 답소를 나눌 예정이며 29일에는 관객들 앞에서 윤희매 꽃피우는 모습도 보여준다. 다음 작가는 동국대 불교대학원에서 불교미술사를 전공했으며 무형문화재 제50호 정지광 스님으로부터 법패를 전수받았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민속박물관, '역사민속박물관'으로 3월 재개관

33년만에 명칭 변경... 광주 역사·사회상 담아낼 것

광주 시립민속박물관 이름이 광주 역사 민속박물관으로 바뀐다.

그동안 민속박물관이라는 명칭은 시대상의 변화와 맞물려 '민속'에만 제한돼 광주시의 다양한 면모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여론이 있었다. 33년만에 명칭이 바뀐에 따라 민속뿐 아니라 광주의 역사와 사회상의 변화를 다채롭게 담아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광주 시립민속박물관은 박물관 개보수 작업을 조만간 마치고 오는 3월 31일 재개관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987년 문을 연 박물관이 남도의 민속 문화를 소개하던 공간에서 한발 나아가 역사 전시 공간을 추가해 새롭게 재편된다.

박물관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명칭변경위원회 회의와 SNS 선호도 조사를 거쳐 이같이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이번 설문은 모두 874명이 참여했으며 그 결과 55%가 '역사 민속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선택했다. 다음으로 '시립박물관' (27%), 기존 명칭 유지(16%)가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박물관은 기존의 남도 민속을 전시해온 1~2층 전시실 가운데 1층은 민속전시실로 조정하고, 2층은 조선 시대 이후 광주 역사를 소개하는 광주 근대 역사실로 바꿨다.

광주 근대 역사실에는 1900년대 사라진 광주 읍성의 복원 모형을 배치했다. 또한 1920~1930년대 총장로 거리를 재현해 광주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구성했다. 특히 광복 후 역사 부분은 금남로를 중심으로 한 도시개발 과정과 5·18 민주화운동 등 현대사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작가회의

신임 이사장 이상국 시인

사무총장 신현수 시인

한국작가회의 제20대 신임 이사장에 이상국 시인이 선출됐다. 또한 사무총장에는 신현수 시인이 뽑혔다.



이상국

한국작가회의는 지난 15일 서울중부여성발전센터 강당에서 제3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이사장과 사무총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사장과 사무총장 임기는 각각 2년.



신현수

새이사장에선임된 이상국 시인은 강원도 양양군 출신으로 1976년 심상에서 '겨울추상화'를 발표하며 등단했으며 유심지 주간, 백담사만해마을 운영위원장, 한국작가회의 부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시집으로 '달은 아직 그 달이다', '빨을 적시며', '어느 종사관의 별에서' 등이 있으며 현대불교문화사, 정지용문화사, 유심작품상 등을 수상했다.

신임 신현수 사무총장은 충북 청원군 출신으로 1985년 계간 '시와 의식'(봄호)에 '서산 가는 길' 등 5편이 추천돼 등단했다. 시집으로 '서산가는 길', '처음처럼', '시간은 사람이 지나가게 만든다더니', '천국의 하루' 등을 펴냈으며 현재 인천사람과문화 이사장,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마인드바디앤소울&씨즐 'FLYDAY'

21일 광주 보헤미안 소극장



블루스밴드 마인드바디앤소울(사진)과 락밴드 씨즐이 'FLYDAY THE FRIENDS COCKTAIL' 공연을 선보인다. 21일 오후 7시 30분 광주 보헤미안 소극장.(광주시 동구 문화전당로 43 지하 1층)

레퍼토리는 마인드바디앤소울의 앨범 수록곡 '귀향', 'aging', 'take me out', 'color of blood', 'I got same old blues', 'i just want to make love to you' 등이다. 또 B.B.King의 '3 o'clock blues', James Brown의 'I got you'도 선보인다.

씨즐은 대중음악부터 하드락까지 다채롭고 화려한 사운드로 관객과 만나며 지난 2013년 싱글 앨범 '너와 난 10년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로 데뷔했다.

이인규(보컬, 기타), 손진원(베이스), 사군(드럼)으로 구성된 마인드바디앤소울은 한국블루스 사이어티를 중심으로 다양한 클럽에서 라이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입장료 1만5000원(무로 유료 제공)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한국문화예술위, 인생나눔교실 멘토봉사단 3월 13일까지 모집

"후배 세대와 함께 성장할 인생 선배를 찾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0년도 인생나눔교실에 함께할 멘토봉사단을 오는 3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6년째를 맞이하는 인생나눔교실은 선배 세대와 후배 세대가 만나 인생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인문의 가치를 공유하는 인문 멘토링 사업이다. 인문적 소양을 갖춘 은퇴 인력과 인문·문화 분야 전문가 중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올해는 은퇴를 앞두고 제2의 삶을 모색하는 은퇴 세대(만 50세 이상)를 대상으로 하며 호남권을 비롯한 5개 권역에서 총 200명을 모집한다. 멘토봉사단은 각 권역 주관단체가 선발하며 서류 심사와 심층면

접 심사를 거쳐 오는 3~4월 중에 최종 선발한다. 호남권은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하며 집단 토론, 상담(메토링), 시연평가 등 새로운 선발 방식을 도입해 봉사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선발된 멘토봉사단은 일정 교육을 거쳐 연말까지 군부대, 자유학년제 시행 중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최대 15회까지 인생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활동 장소를 기존 시설 외에 인생 상담이 필요한 다양한 기관과 시설 등으로 다변화할 계획이다. 자세한 정보는 문화예술위원회와 전북 문화관광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2020년에도 "각종 연회 행사"는 **벤틀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

프로야구단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KBO LEAGUE KOREAN AIR 아시아나항공 t'way